

엘리트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에 따른 실패내성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이원희*(용인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이 엘리트유도선수의 성장마인드셋에 따른 실패내성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2년 대한유도회 유도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2022년 5월-8월까지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된 후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총 29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18.0, AMOS/WIN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둘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셋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넷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는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주제어 : 엘리트 유도선수, 성장마인드셋, 실패내성, 진로성숙도

* opchampion73@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의 시기이다. 그 중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진로가 가장 주된 고민이 되고 있다(문성연, 박영진, 이봉근, 2016). 4차 산업 시대 이후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현상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2021)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하지 않는 대학생은 약 6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은 진로발달단계 차원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Super, 1990),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엘리트 유도선수들은 진로에 대한 선택이 다양하지 않아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진로를 위해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미래역량 가운데 마인드셋이라는 심리적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마인드셋(mindset)은 지능과 학습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지적능력에 대해 어떠한 암묵적 신념을 갖는지에 따라 행동양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신념을 뜻한다(Dweck, 2015). Dweck은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성장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고정마인드셋(fixed mindset)으로 구분되며, 개인이 가진 학습과 지능에 대한 믿음이 생활양식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Dweck, 2016, 2017). 즉,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능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문제해결능력, 지식구성능력, 학습태도, 노력, 귀인능력, 정서 등에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 Leggett, 1988). 교육현장에서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습자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 믿으며, 학습상황에서의 어려움과 실패는 극복해야하는 요

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Dweck, 2016; Yeager & Dweck, 2012). 즉,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과정에서 내적 동기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인내, 몰입하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문병상, 2013).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진로탐색과 준비를 넓히고, 그 과정은 올바른 진로 준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발달론적 입장에 따르면 진로는 한 순간의 선택이 아닌 평생에 걸쳐 발달된다. 이에 대해 Super(1957), Crites(1974) 등은 개인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능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한다고 언급하여 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성숙도를 강조하였다.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선택이나 진로 관련 의사결정 등 진로 관련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Super, 1957).

엘리트 유도선수에게 진로는 생존은 물론 자아실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진로와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로성숙은 엘리트 유도선수들에게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Guay, Ratelle, Senecal, Larose, & Deschenes, 2006).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서는 전공을 이해하고 적성을 매칭하여 선택전공과 관련된 취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진로성숙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민제, 2010). 따라서 엘리트 유도선수들에게 유도선수로서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진로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엘리트 유도선수의 성장마인드셋이 그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을 인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 즉,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있다(김아영, 1997). Clifford(1988)에 따르면, 실패내성은 실패경험 그 자체에 대하여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정적인 성격 특성의 하나 이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동기변인이다. 실패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초

래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대처할 경우 후속과제를 수행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lifford, Kim & McDonald, 1988). 김아영(1997)은 실패내성이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자기주도성이나 자기효능감, 적응 유연성보다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학습된 무력감에 대하여 저항력이 더 강하다고 하였다. 실패내성은 학교 학습의 장면에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진로성숙도를 비롯해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등에도 확대되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패내성은 그 자체로 엘리트유도선수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장마인드셋의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는 그릿,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등을 매개로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진로 분야에서 마인드셋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릿과 열정, 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집단이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진예민, 김다혜, 양수진, 2019), 이와 유사하게 열정 마인드셋은 진로 적응성의 관계에서 그릿과 숙달목표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박서단, 양수진, 2020). 또한, 성장 마인드셋이 그릿이나 자기효능감을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김복환, 홍석기, 하문선, 2019; 김창규, 김재호,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진로교육 및 상담 개입에서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교육 및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증명해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활용은 다소 제한적이었으며, 전공이나 진로의 제한적 특성을 가진 집단과 같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 대상에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이 엘리트유도선수의 성장마인드셋에 따른 실패내성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진로를 포기하는 엘리트유도선수들을 위해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심리내적인변인인 실패내성과 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마인드셋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요인들의 활용영역을 넓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엘리트유도선수들

의 진로적응성을 촉진시키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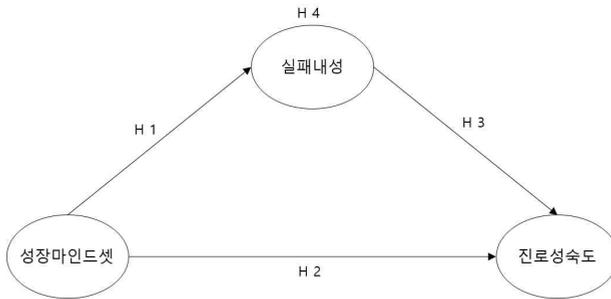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에 따른 실패내성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대한유도회 유도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대한유도회에 등록된 엘리트유도선수를 대상으로 2022년 5월~8월까지 지도자들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대학생 중 엘리트유도선수가 목표를 향해 가지는 다양한 지향성과 전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모집단을 구성하는 대학생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된 후 300부의 설문지가 회수하였고 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결과

변인	구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79	61.1
	여성	114	38.9
학년	1학년	108	36.9
	2학년	80	27.3
	3학년	41	14.0
	4학년	64	21.8
수련기간	5년 미만	67	22.9
	5-10년	86	29.4
	10-15년	100	34.1
	15년 이상	40	13.7
입상경력	입상경력 없음	5	1.7
	국내대회 입상	72	24.6
	국제대회 입상	216	73.7
합계		293	100.0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총 29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 성별, 학년, 수련기간, 입상경력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변인으로는 성장마인드셋 8문항, 실패내성 18문항 그리고 진로성숙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성장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Dweck(2006)이 개발한 성장마인드셋 척도를 중심으로 이창식과 장하영(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8문항으로 지능의 변화에 대한 신념인 지능마인드셋(4문항), 성격의 변화에 대한 신념인 성격마인드셋 (4문항)이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마인드셋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패내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김아영(1994)이 개발한 한국형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중심으로 전선영(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패내성척도는 과제 수준 선호, 감정, 행동의 3개 하위요인이며, 각 6문항 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경험에 대해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패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8개 문항(6, 7, 8, 9, 10, 11, 12, 17)은 부정적인 의미의 질문내용으로 역코딩을 실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Rottinghaus, Day와 Borggen(2005)가

진로적응성 및 진로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미래 검사도구(CFI: Career Futures Inventory) 중 진로적응성 부분을 선별하여 사용한 박수영(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진로미래검사도구는 진로와 관련한 적응성과 낙관성을 측정하여 적응성과 낙관성 간의 개인차에 대해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계획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진로에 관한 태도, 기대와 감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로적응성이 높은 개인은 학업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성이 있고 진로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로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11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이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항목 별로 단일차원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김계수, 2008). 단계별 항목 구성에 대한 최적의 상태를 도출하기 위해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chi^2 = 3.114$, $df = 614$, $p = .000$, $RMR = .028$, $SRMR = .0506$, $TLI = .894$, $CFI = .910$, $RMSEA = .085$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적합도 지수들은 기준치에 충족하여 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Netemeyer, Boles, McKee & McMurrian, 1997).

하위 요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념신뢰도와 AVE값을 분석한 결과 모든 값들이 일반적 기준($CR = .70$, $AVE =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한다(Hair, Babin, Black, Andreson & Tatham, 2006). 또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로 내적일관성을 분석한 결과가 모든 요인에서 .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Van de Ven & Ferry, 1979).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B	β	S.E.	C.R.	α	C.R	AVE
성장 마인드 셋	지능 마인드 셋	지능1	1	.687			.821	.812	.519
		지능2	1.053	.758	.093	11.275			
		지능3	1.014	.733	.092	10.964			
		지능4	1.026	.743	.092	11.089			
	성격 마인드 셋	성격1	1	.884			.854	.738	.425
		성격2	1.028	.927	.052	19.855			
		성격3	.576	.523	.061	9.457			
		성격4	.782	.683	.058	13.438			
실패 내성	과제 수준 선호	과제1	1	.308			.650	.873	.550
		과제2	.999	.274	.296	3.371			
		과제3	.740	.278	.218	3.401			
		과제4	1.780	.751	.364	4.883			
		과제5	1.832	.760	.374	4.891			
		과제6	1.849	.786	.376	4.915			
행동	감정	감정1	1	.544			.856	.870	.529
		감정2	1.135	.656	.136	8.331			
		감정3	1.316	.715	.150	8.765			
		감정4	1.556	.803	.167	9.327			
		감정5	1.392	.812	.148	9.374			
		감정6	1.374	.743	.153	8.956			
진로성숙도	행동	행동1	1	.455			.875	.860	.515
		행동2	1.636	.673	.226	7.252			
		행동3	2.237	.850	.283	7.913			
		행동4	2.195	.881	.274	7.996			
		행동5	1.696	.725	.227	7.479			
		행동6	2.008	.813	.257	7.802			
진로성숙도	성숙1	1	.720			.934	.929	.546	

성숙2	.997	.689	.086	11.651
성숙3	1.107	.802	.081	13.631
성숙4	.933	.671	.082	11.342
성숙5	.847	.650	.077	10.973
성숙6	1.209	.864	.082	14.734
성숙7	1.342	.916	.086	15.645
성숙8	1.106	.757	.086	12.835
성숙9	1.010	.689	.087	11.657
성숙10	1.240	.818	.089	13.908
성숙11	.993	.693	.085	11.723

4. 자료처리방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응답과 무기입 등의 오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293부의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먼저 SPSS/WIN 18.0 버전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AMOS/WIN 18.0 버전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상관관계분석

판별타당성은 Fornell과 Larcker(1981)에 따르면 두 요인을 대상으로 각 요인의 AVE값이 두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합보다 크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의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 r값이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제곱 값에 해당하는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요인들의 판별타당

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한다<표 3>.

표 3. 요인별 상관관계분석 결과

	지능 마인드셋	성격 마인드셋	과제수 준번호	감정	행동	진로 성숙도
지능마인드셋	1					
성격마인드셋	.365**	1				
과제수준번호	.445**	.204**	1			
감정	.530**	.242**	.631**	1		
행동	.513**	.161**	.481**	.579**	1	
진로성숙도	.669**	.430**	.447**	.548**	.476**	1

** $p < .01$

2.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추정을 최대우도법으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왜도는 -.315~.218 값의 범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115~.655값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est, Finch와 Curran(1995)가 제시한 왜도 ± 2 , 첨도 ± 4 의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정규성 검증 결과

	N	M	SD	왜도		첨도	
				statistic	S.E.	statistic	S.E.
지능	293	4.627	.831	.072	.142	.468	.284
성격	293	4.118	1.180	-.315	.142	-.055	.284
과제	293	4.590	.800	.124	.142	.121	.284
감정	293	4.776	.900	.218	.142	.052	.284
행동	293	4.514	.966	.158	.142	-.115	.284
성숙	293	4.854	.822	-.213	.142	.655	.284

3. 적합도 검증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chi^2= 3.669(p= .000)$, $df= 101$, $GFI= .964$, $AGFI= .917$, $RMR= .034$, $TLI= .952$, $RMSEA= .096$, $CFI= .979$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 중 GFI, AGFI, NFI, CFI가 .8이상, RMR이 .08 이하로 나타날 시 수용가능한 수준의 모델로 평가한다(Bagozzi & Yi, 1988; 김계수, 2008).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GFI	AGFI	RMR	TLI	CFI
분석 결과	.964	.917	.034	.952	.979
허용 수준	.8-.9	.8-.9	.05-.08	.8-.9	.8-.9

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분석하여 다음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엘리트 유도선수의 성장마인드셋은 실패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분석 결과 경로계수가 .677, t값이 6.938로 나타났다($p<.001$). 둘째, 엘리트 유도선수의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분석 결과 경로계수가 1.032, t값이 3.504로 나타났다($p<.001$). 셋째, 엘리트 유도선수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표 6. 가설 검증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여부
H 1	성장마인드셋→실패내성	.677	.098	6.938	채택
H 2	성장마인드셋→진로성숙도	1.032	.295	3.504	채택
H 3	실패내성→진로성숙도	.808	.111	7.251	채택

** $p<.01$, *** $p<.001$

3의 분석 결과 경로계수가 .808, t값이 7.251으로 나타났다($p<.01$).

엘리트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실패내성의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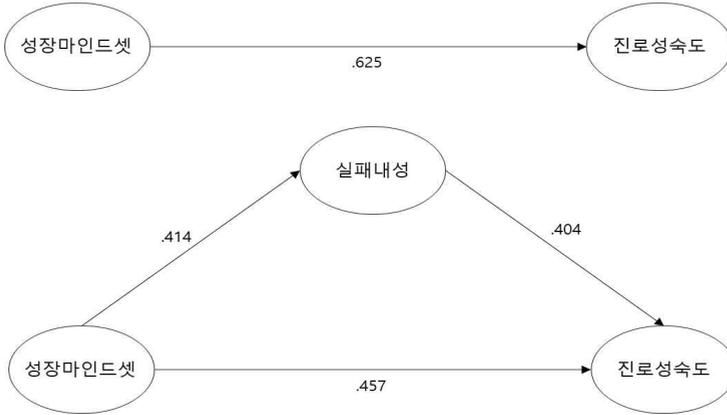


그림 2.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표 7.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간접효과 검증

	coeff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인: 실패내성)						
constant	2.818	.207	13.619	.000	2.411	3.226
성장	.414	.046	8.897	.000	.322	.505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인: 진로성숙도)						
constant	.984	.230	4.280	.000	.531	1.436
성장	.457	.046	10.049	.000	.368	.547
실패내성	.404	.051	7.942	.000	.304	.504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7>, <그림 2>와 같다.

성장마인드셋은 실패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B = .414(p < .000)$,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 = .404(p < .000)$, 실패내성이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마

인드셋에서 진로성숙도 간의 총 효과는 $B = .625(p < .000)$ 였으나, 매개변수인 실패 내성이 투입되면서 성장마인드셋에서 진로성숙도 간의 경로의 직접효과가 $B = .457(p < .000)$ 로 감소하였고 성장마인드셋에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여 실패내성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8.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검증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Total effect	.625	.044	.537	.712
Direct effect	.457	.046	.368	.547
Indirect	.167	.034	.105	.240

IV. 논의

본 연구는 엘리트유도선수의 성장마인드셋이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수와 오수원(2018)은 마인드셋의 유형에 따라 실패경험에 대한 해석과 좌절 후 태도를 비교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경험으로 인한 좌절에 집중하기보다 이를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자기개선에 노력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은

학습에 대한 실패상황을 자신의 자질 및 불신으로 학습에 대한 열등감을 느껴 좌절된 태도를 보이며 성장 마인드셋과 대조적인 행동을 나타낸다(Dweck, 2000; Park & Jerome, 2016). 본 결과를 통해 성장마인드셋이 실패내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력을 통하여 능력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신념인 성장 마인드셋을 높이기 위한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마인드셋 코칭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훈련 및 경기상황에서 부딪히는 실패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고 이후 수련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패상황 분석과 피드백으로 실패를 건설적인 태도를 대응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복환, 홍석기와 하문선(2019)는 성장 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박수빈과 양수진(2019)은 성장 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Burnette 등(2019)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장마인드셋 함양 교육을 실시한 학생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를 통해 성장마인드셋 개입을 한 그룹의 학생들이 자기효능감과 진로 발달 및 진로흥미가 높아졌음을 제시하여 성장마인드셋 함양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오미경(210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마인드셋과 리더십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장마인드셋이 높을수록 책임의식이 높고 집단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집단구성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는 등 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는데, 책임의식, 문제해결력, 대인관계 등은 장계영 등(2009)이 개발한 진로적응력의 하위변인이므로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복환 등(2019)은 종단연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 변화율은 진로성숙도 변화율과 자기효능감 변화율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한결(202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시 성

장마인드셋 함양을 지원하는 개입이 진로목표를 설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박서단 등(2020)은 국내 대학생 대상 연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보고하였으며, 진예민 등(2021)은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제한하지 않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도자 및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선수들을 위한 성장마인드셋 함양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진로적응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영(2009)은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성숙도 간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은지(2012)는 여대생이 지각한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부적상관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실패내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습된 무기력감도 낮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김아영, 주지은, 1999), 실패내성이 높은 엘리트 유도선수들은 낮은 학습된 무기력감을 보이고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패내성의 실패에 대한 긍정적 해석과 건설적인 대처 반응은 엘리트유도선수들의 진로준비를 위한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정해진 기준과 타인의 의도 등에 의해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이지만, 실패라는 결과에 대처해나가는 자원으로서의 실패내성, 진로적응성은 엘리트 유도선수들이 스스로의 적극적인 선택과 실천을 통해 행복을 성취시키는 주요한 심리적 특성이 될 수 있다.

넷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는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은희와 김은영(2020)은 실패내성이 성장 마인드셋과 학업 참여의 관계에서 긍정적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자질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진 학습자는 실패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학업참여에 반영되는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엘리트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패내성을 통하여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마인드셋이 실패내성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예측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유도선수들이 실패상황을 수용하고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간접적으로도 실패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실패경험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실패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실패를 경험한 엘리트유도선수에게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킴으로써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속 기관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이 엘리트유도선수의 성장마인드셋에 따른 실패내성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2년 대한유도회 유도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2022년 5월~8월까지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된 후 30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총 29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18.0, AMOS/WIN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둘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성장마인드셋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셋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넷째,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실패내성은 진로성숙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는 분석 결과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마인드셋이 실패내성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예측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유도선수들이 실패 상황을 수용하고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간접적으로도 실패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실패경험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실패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실패를 경험한 엘리트유도선수에게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킴으로써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속 기관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엘리트유도선수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엘리트 유도선수가 아닌 유도전공 대학생이나 타 종목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분석 결과에 있어 차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에 따른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면 유의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장마인드셋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내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실패내성 이외 다른 변인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계수(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복환, 홍석기, 하문선(2019). 초기 청소년의 성장신념,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39-59.
- 김아영(1997). 학업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1(1), 1-19.
- 김아영(1994). 한국형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2(3), 59-75.
- 김아영, 주지은(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9, 157-176.
- 김은영(200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습된 무기력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창규, 김재호(2020). 초등학생의 성장 마인드셋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945-968.
- 김한결(2021).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목표 특성을 통한 마인드셋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문병상(2013). 청소년들의 지능변화신념의 종단적 변화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4), 875-890.
- 문성연, 박영진, 이봉근(201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719-730.
- 박서단, 양수진(2020).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열정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그릿과 숙달접근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183-213.

- 박수빈, 양수진(2019).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열정마인드셋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7.
- 박수영(2015). **공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은희, 김은영(2020). **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과 학업참여의 관계에서 실패내성과 그릿의 이중매개효과**. **교육연구논총**, 41(2), 5-26.
- 오미경(2019). **마인드셋, 학업성취도 및 리더십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2, 201-21
- 이은지(2012). **여대생이 지각한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창식, 장하영(2018). **희망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의 역할**.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95-102.
- 장계영(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선영(2021).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시험불안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민제(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예민, 김다혜, 양수진(2021).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그릿-열정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집단별 심리특성 및 진로적응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27(2), 167-189.
- 진예민, 김다혜, 양수진(2019). **그릿-열정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집단별 심리특성 및 진로적응성 차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56.
- 최재수, 오주원(2018). **Carol S. Dweck의 마인드셋(Mindset)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예술 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2), 139-147.
- 한국경제연구원(2021).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2021. 10. 21.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1), 246-263.
- Burnette, J. L., Pollack, J. M., Forsyth, R. B., Hoyt C. L. (2019). A Growth Mindset Intervention: Enhancing Student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4(2), 1-31.
- Clifford, M. M. (1988). Failure tolerance and risk taking in ten-to-twelve year old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 15-27.
- Clifford, M. M., Kim, A., & McDonald, B. A. (1988). Responses to failure as influenced by task attribution, outcome attribution, and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 19-37.
- Crites, J. O. (1974). Career development process: A model of vocational maturity. In E. L. Herr (Ed.).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pp. 296-320). Boston: Houghton Mifflin.
-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NY: Ballantine Books.
- Dweck, C. S. (2016). What having a “growth mindset” actually means. *Harvard Business Review*, 13, 213-226.
- Dweck, C. S. (2017). *Mindset: Changing the way you think to fulfil your potential*. London: Hachette UK.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Guay, F., Ratelle, C. F.,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1-17.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and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Netemeyer, R. G., Boles J, S., McKee, D, O., & McMurrian, R. (1997). An investigation into the anteceden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in a personal selling context. *Journal of Marketing, 61*(3), 85-9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ed., pp. 197-2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Van de ven, A., & Ferry, D. (1979).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John Wiley, New York.
- Park, Y. S. & Glenn Jerome (2016). *State of the Future : The Millennium Project.* Kyobo Book Centre, Seoul Korea.
- Yeager, D. S., & Dweck, C. S. (2012). Mindsets that promote resilience: When students believ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can be developed. *Educational Psychologist, 47*(4), 302-314.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Failure-tolerance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Growth Mindset of Elite Judo Players

Lee, Won-Hee(Youngin Univ.)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ilure tolerance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growth mindset of elite inducing player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ilure tolerance. To conduct the study, a total of 293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rom May to August 2022, with the Judo players of the Korea Judo Association as the population. The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WIN 18.0 and AMOS/WIN 18.0 to analyze frequency, relia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using model 4 of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1 that the growth mindset of elite judo play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failure tolerance was adopted. Second, Hypothesis 2 that the growth mindset of elite judo play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was adop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rd, Hypothesis 3 that the failure tolerance of elite judo play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maturity was adop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urth, Hypothesis 4 that the failure tolerance of elite judo players will mediate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career maturity was adop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ey words: Elite Judo Players, Growth Mindset, Failure tolerance, Career Maturity

논문투고일 : 2022.09.30.

심사일 : 2022.11.07.

심사완료일 : 2022.11.19.